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최 미 진*

차 례

1. 들머리
2. 작가의 체험과 서사화 과정의 틈새
3. 중기 소설의 자리와 소설세계의 연속성
4. 정보 확정과 개작 문제
5.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그간 김정한 소설의 연구에서 결락된 부분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선, 김정한의 소설 연구에서 특징이자 한계로 꼽는 ‘작가적 체험의 서사화’를 검토하는 일이다. 작가적 체험과 관련된 누락된 정보를 찾는 동시에 비객관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과정>에서 보듯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의 체험과 서사 전략 사이의 관계와 의미를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

다음으로, 김정한의 삶과 문학에서 그 행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중기의 소설세계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 시기 작가의 삶과 창작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발굴·소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진행되어야 한다. 전후기 소설의 변모과정에 주목하여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소설세계의 연속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정한의 소설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보 확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김정한의 소설 연구는 텍스트 자체에 산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대상 텍스트를 달리해 왔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원전비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항진기>와 같이 작가에 의한 수정이나 개작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간과된 원본 혹은 개작본을 재고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김정한의 소설 연구는 결락된 부분을 제대로 짚는 일에서부터 소설세계의 연속성을 비판적으로 재구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천착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어 : 김정한, 체험의 서사화, 중기소설, 연속성, 변모과정, 원전비평, 정보 확정, 개작, <과정>, <농촌세시기>, <항진기>

1. 들머리

요산 김정한은 1932년 『문학건설』 창간호에 발표한 <그물>을 시작으로 1985년 마지막 소설 <슬픈 해후>에 이르는 동안 51편의 소설을 남겼다.¹⁾ 창작 활동기간에 견준다면 많지 않은 소설을 내놓은 셈이다. 등단 작이자 출세작인 <사하촌>이 전형기 문단에서 카프의 문제의식을 내장한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면, <모래톱 이야기>는 작가의 이례적인 창작 활동으로 우선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소설이 본격적으로 조명

1) 자필 「요산 작품목록」(요산문학관 소장)에 “문학 편집부에 送稿, 行方未詳”으로 되어 있는 「오뉘」(1950)를 비롯하여 1950년대 김정한의 작품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모래톱 이야기> 이후부터다.

김정한의 소설 연구는 대부분 카프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1970년대 민족문학론을 뒷받침했다는 평가²⁾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반골기질”의 작가적 체험이 녹아 있는 굴곡 많은 현대사와 그 치부를 직시하고 고발하였다는 점, 하층민의 삶에 친착하여 강인한 의지의 인물형을 창조했다는 점, 뛰어난 언어감각을 통해 구체적 실감을 획득했다는 점들은 김정한 문학의 특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모래톱 이야기> 이후 활발한 창작활동은 1960년대 참여문학론을 뒷받침하면서 1970년대 창비 계열이 주도한 민족문학론, 농민문학론, 민중문학론, 제3세계문학론에 창작적 지평과 디딤돌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문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김정한 소설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연관성을 밝힌 글³⁾에서부터 농민문학,⁴⁾ 민중문학,⁵⁾ 민족문학,⁶⁾ 그리고 문체론⁷⁾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

-
- 2)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강진호 엮음), 새미, 2002, 40쪽.
 3) 염무웅, 「김정한의 사하촌」, 『농민문학론』(신경림 엮음), 온누리, 1983; 조갑상, 「김정한 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1; 윤정규, 「요산 김정한이 겪은 해방정국」, 『역사와비평』 제32호, 1995년 가을호; 김중하, 「인간 김정한론」, 『김정한』(강진호 엮음), 새미, 2002; 이순옥, 「습작기 요산 김정한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김태웅, 「한국 근현대 지방 지식인 김정한의 사회운동과 터전 의식」, 『한국사연구』 135호, 한국사연구회, 2006.12.
 4)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 제7권 제2호, 1972; 김종균, 「김정한 초기작품의 농민의식」, 『어문논집』 제27집, 민족어문학회, 1987; 김명인, 「1930년 전후의 농민운동과 그 소설적 형상화」,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김명인, 「1930년 전후의 농민운동과 그 소설적 형상화」,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김준, 『한국농민소설연구』, 태학사, 1990.
 5) 임중빈, 「김정한론」, 『창조』 제 26권 제3호, 1972.3; 염무웅, 「김정한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4; 염무웅, 「농민소설의 민중문학적 맥락-김정한과 송기숙의 소설사적 위치에 관한 메모」, 『문예미학』 제9호, 문예미학회, 2002.
 6) 김병걸,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 1972년 봄호; 오양호, 「현실과 산문정신」, 요산김정한선생고회기념사업회, 『요산문학과 인간』, 오늘의문학사, 1978; 구중서, 「리얼리즘 문학의 지맥」, 『민족문학의 길』, 중원문화사, 1979; 이동하, 「70년대의 소설」, 『한국문학의 현단계』 I(백낙청 외 엮음), 창작과비평사,

던 것이다. 최근에는 근대성,⁸⁾ 페미니즘,⁹⁾ 지역성¹⁰⁾으로 연구 경향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현대소설사적 위상¹¹⁾을 검토하는 흐름들도 엿보인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의 소설을 집중 조명한 연구집¹²⁾으로 갈무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를 내장하고 있다. 우선, 김정한의 삶과 문학에 대한 명성이 별다른 의문 없이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 연구가 작가의 명성을 확인하거나 덧붙이는 수준에 그

1982; 김종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김정한론」,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백낙청 외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4; 김경원, 「리얼리즘 문학의 공간성과 역사성」, 『작가연구』 제4호, 새미, 1997; 박재범, 「김정한 소설의 진보담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3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 7) 김정자, 「주제의식의 강렬성과 삶의 동질성」, 『한국현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이상신, 「김정한의 문체연구-「사하촌」의 언어학적 문체 분석 시론」, 『이화어문』 제9호, 1987, 108~123쪽; 김태기, 「요산 김정한 소설세계와 이야기 방식 연구」, 경상대 박사논문, 1996; 김봉모, 「김정한 소설의 묘사적 어휘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 8) 이 경, 「60년대의 환부와 치유-김정한 소설론」, 『수련어문학』 제26·27집, 수련어문학회, 2001;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김정한』(강진호 엮음), 새미, 2002; 정주일,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근대화 담론 연구: 김정한, 이호철, 남정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충북대 박사논문, 2009.
- 9) 송명희, 「김정한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제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회, 2002; 김주현, 「요산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 10)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8호, 동남어문학회, 2004; 문재원, 「요산 소설에 나타난 지역성과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 11) 한수영, 「김정한 소설의 지역성과 세계성-문단 복귀 후의 김정한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문학도시』, 2004년 봄호,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2004.
- 12) 요산 김정한선생 고회기념 사업회, 『요산 문학과 인간』, 오늘의 문학사, 1978; 특집: 김정한, 『작가연구』 제4호, 새미, 1997; 강진호 엮음, 『김정한』, 새미, 2002; 「요산 김정한의 삶과 문학·1」,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으나 그것조차 작가의 명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그러니까 작가의 명성과 그 속에서 구축된 연구 성과들이 새로운 연구방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김정한 소설 연구에서 개별 연구자들의 자발성이 두드러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관심의 퇴조와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연구 인력이 대개 학위논문 취득자를 통해 확보된다고 볼 때, 김정한 소설은 학문후속세대의 관심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지금껏 김정한 소설을 다룬 박사논문은 조갑상과 김태기 둘 뿐이다. 석사논문들은 적지 않지만 깊이를 더하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한 소설 연구는 학회나 잡지의 특집 기획을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를 새삼 확인하거나 덧붙이는 방식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기존의 김정한의 소설 연구가 지닌 몇몇 문제점에 착안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은 몇몇 연구자들이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고,¹³⁾ 이후 연구 성과가 괄목할 만큼 폭 넓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2. 작가의 체험과 서사화 과정의 틈새

김정한의 소설 연구에서 특장이자 한계로 꼽는 부분 중 하나는 체험의 서사화와 관련된다. 때문에 작가의 삶과 소설 사이의 관계와 그 의미

13) 이규정, 「요산 김정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35집, 부산여자대학, 1993; 이정석, 「김정한 문학연구의 재정초를 위하여」, 『우리문학연구』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 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우선, 작가의 삶의 이력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 요구된다. 작가의 생애 연보는 검증된 역사적 기록과 실증적 자료에 기반을 두기보다 작가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작가의 기억들은 정확한 편이라 하나 그 틈새가 분명 존재한다. 이를테면, 1931년 검열로 인해 본문이 게재되지 못한 단편소설 <구제사업>을 『신계단』에 투고했다고 자필 연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잡지는 1932년 10월 창간되었고 다른 호에서도 이 소설을 찾아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무렵 조선인 유학생학우회에서 발간하던 『학지광』 편집에 참가했다는 사실 또한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¹⁴⁾

김정환의 자필연보는 특히 스스로 ‘절필기’라 규정한 중기 소설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알려진 연보조차도 그 정확성을 단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경남공론』에 게재되었던 <농촌세시기>의 서지사항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같은 잡지에 수록되었던 <사라진 사나이>는 자필연보에서 아예 빠져 있다. 그리고 광복기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작가 이력은 작가 스스로 상세하게 밝혀 놓지 않은 까닭에 새롭게 키워내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작가의 이력과 작품 활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험의 서사화가 두드러진 작품은 삶의 편린들과 서사 전략 사이의 간극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새롭게 의미화해야 한다. 유년기 체험을 형상화한 <농촌세시기>, 1928년 울산 대현공립보통학교에서 조선인 교원연맹 결성을 계획하다 피검되었던 사건을 소설화한 <어둠속에서>, 1932년 양산 농민봉기사건의 체험을 토대로 한 <그물[罟]>이나 <사하촌>, 1939년 전근 간 남명학교에서 일본인 교장에 대한 불만을 비틀어 표현한 <낙일홍>, 1940년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맡아 구독자를 모으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되었던 체험을 살린 <위치>, 광복 후 좌익계

14) 이순욱, 앞의 글, 35~45쪽.

통 문학단체에 가입되었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옥중회갑>과 <설날>,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되어 감옥살이를 했던 체험에 바탕을 둔 <슬픈 해후>, 5·16쿠데타 이후 피검의 경험을 살려낸 <과정> 등이 김정한의 삶과 함께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소설들에서 실증적인 역사적 자료와 체험의 재구성 자체가 모호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일별해야 한다. 이를테면 <과정>은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한창인 시절, 허연 교수가 “대학술강연회”에서 남북한 언어적 통일을 제안한 것이 빌미가 되어 피검된 이야기이다. 이때 허연 교수의 피검은 5·16쿠데타 이후 작가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설적 장치에서 작가의 체험과의 간극이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못했다. <과정>에서 허연 교수가 “대학술강연회”를 한 것을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김정한이 “대학술강연회”와 유사한 강연회에 열기를 보였던 것은 4월혁명 이후다. 김정한은 4월혁명 직후 조직된 민주민족청년동맹 산하 부산·경남맹부 일원으로 활동했다. 부산·경남맹부는 민주민족청년동맹의 전국 조직의 기반으로, 자체 조직을 확대하는 일상적인 활동과 함께 통일운동을 확산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60년 8월 17일 광복 15주년을 맞아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경남맹부는 ‘8·15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4월혁명 당시의 정치의식을 문화행사의 형식 속에 녹여낸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김정한은 지난 15년간의 한국사회를 회고·전망하는 자리에서 문학 방면의 강연을 하였다.¹⁵⁾ 그리고 김정한은 10월 30일 부산·경남맹부 창립기념 강연회인 ‘민족통일대강연회’에서 강연을 한다. 당시 ‘민족통일대강연회’의 주제와 전경은 소설 <과정>에 묘사된 “대학술강연회”의 강연주제뿐 아니라 강연자들과 청중의 분위기와 상당 부분 흡사하다. ‘민족통일대강연회’는 ‘각 분야에서 보는 민족통일의 긴 절성(緊切性)과 그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정치 분야 주홍모, 사회 분야

15) 김선미, 「이중률의 민족운동과 정치사상」, 부산대 박사논문, 2008, 149쪽.

조동필, 경제 분야 최종식, 문학 분야 김정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회는 통일운동을 대중 속으로 확산시켜 대중적 통일운동단체의 형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강연회에는 1천여 명에 가까운 청중이 모여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한다.¹⁶⁾ <과정>에서 “×국민학교에서 있었던 학술강연회”에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과 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는 당시 강연회에 대한 청중에 대한 기대와 뜨거운 열기에 맞닿아 있다. 그리고 “<외국 원조는 어떻게 씌어졌는가?>라는 긴 연재”로 “까다로운 숫자들을 외우”며 “열심히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J박사”는 경제 분야 최종식이었다면, 뒤이어 “<문화의 자주성>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던 허연 교수가 곧 김정환이었던 셈이다. “언어의 통일, 민족의 통일”을 요구했던 허연 교수의 강연 내용은 당시 ‘민족통일대강연회’의 주제와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허연 교수의 피검 빌미가 된 “대학술강연회”는 4월혁명 이후 작가가 참여한 민족민주청년동맹의 부산·경남맹부가 주최한 ‘민족통일대강연회’의 강연 체험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에 5·16쿠데타 이후 피검되었던 작가의 체험을 결합한 것이 <과정>인 셈이다.

그리고 작가의 체험과 소설적 형상화 과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 <과정>은 작가의 체험과 시대적 배경 사이의 간극이 두드러진다. 소설은 시대적 배경을 3·15 부정선거 전후로 설정함으로써 5·16쿠데타 이후 피검되었던 작가의 체험을 다르게 의미화했다고 볼 수 있다. 3·15 부정선거 데모가 한창이던 당시 허연 교수의 피검이 “대학술강연회”의 참여 행위와 “언어의 통일, 민족의 통일 그것은 피의 요급입니다! 명령입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이고, 결국 “××당 보안법”으로 통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검찰에 기소된다. 이러한 허연 교수의 피검과 기소가 3·15 부정선거 데모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자유당 정권의 폭력성과 반

16) 김선미, 위의 글, 150쪽.

민주성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4월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자연스럽게 대면하게 한다. 그러나 소설에 내장한 작가의 목소리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 듯하다. 작가의 체험이 5·16쿠데타 이후라는 점뿐 아니라 <과정>이 발표된 것이 1967년 1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설의 비판적 목소리는 자유당 정권에 국한되지 않아 보인다. 5·16쿠데타 이후 국가 재건최고회의는 정권이양 시기를 국민에게 약속하였지만 결국 박정희 정권이 출범했고,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과 베트남전쟁 과병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홍보와는 달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이 속출하였다. 더욱이 자유당 정권보다 강화된 반공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이자 4월혁명의 열망을 강압하는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과정>에 내장한 비판적 목소리가 자유당 정권을 예들려 박정희 정권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과정>을 비롯한 작가적 체험의 서사화는 삶의 편린들이 소설적 형상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나갔는지 꼼꼼하게 살펴나가야 한다.

3. 중기 소설의 자리와 소설세계의 연속성

김정환의 삶과 문학에서 그 행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기가 존재한다. <모래톱 이야기>에서 “이십 년이 넘도록 내쳐 붓을 꺾어 오던 내가 새삼 이런 글을 끼적거리게” 되었다고 밝히며 문단 복귀를 알렸지만, 작가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절필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상태다. 조갑상은 김정환의 자필 『요산 작품목록』을 토대로 이 시기 희곡 <인가지>를 비롯한 6편의 소설과 6편의 콩트를 창작한 사실을 밝혔다.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새로운 작품이 발굴·소개되면서¹⁷⁾ 이 시기

작가의 창작 활동과 작품 성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최원식은 일찍이 작가의 침묵이 “요산문학의 생략점”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실존적 감각의 회복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침묵한 “생략점”은 자기 인식의 치열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인 만큼 “고통스럽지만” “의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¹⁸⁾ 특히 회곡 <인가지>의 성격 규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¹⁹⁾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요산기념사업회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내놓은 『김정한전집』에서는 ‘절필’과 ‘문단 복귀’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문학 활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1)

1940년(33세) 학교에서는 우리말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고, 신문들도 자진 폐간을 강요받음. 3월, 敎員 辭表를 내고(5월에 수리됨) 東亞日報 東萊支局을 인수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東萊로 옮겨 옴. 支局 일에 전념하던 중 治安維持法 違反이란 罪名으로 警察에 被檢. 8월, 東亞日報 강

17) 이 시기 김정한의 작품을 발굴·소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태일, 「김정한 회곡 “인가지” 연구」,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406-410쪽; 이순욱, 「1950년대 김정한의 미발굴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232-309쪽; 최미진, 「요산 김정한의 단편소설 「사라진 사나이」 연구」, 『한국문학비평과 이론』 제3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159-182쪽.

18) 최원식, 앞의 글, 55-56쪽.

19) 박태일은 「인가지」를 발굴·소개하면서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기에 어려운 일본 관헌의 허가를 받아가면서까지 부왜매체에 한글로 발표된 부왜회곡으로 규정하였다. 박태일, 위의 논문, 126-153쪽. 이후 구명옥, 양정임, 하정일, 황국명 등이 나서 회곡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구명옥, 「광복 전후 김정한의 회곡과 연극운동」,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 지역문학회, 123-150쪽; 양정임,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식민 지배 정책 연구-회곡 「인가지」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21집, 2006, 125-151쪽; 하정일, 「일제말기 김정한 문학과 탈식민 저항의 세 유형」,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374-391쪽;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289-318쪽.

제 폐간당함. 日帝의 발악이 극도에 달해 이로부터 붓을 꺾음. 11월 慶南 綿布組合 書記로 취직

1966년(59세) 10월 「모래톱 이야기」(文學 6월호) 발표로 中央 文壇 복귀.²⁰⁾

(2)

1940년(33세) 3월 교원직을 그만두고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맡다(지국장 명희는 대학 후배 박성욱). 지국 일에 전념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되다. 동래에서 서구 동대신동 3가 210번지로 이사하다. 11월 경남도청 상공과 산하 민간물자통제 단체인 경남 면포조합 서기로 취직하여 해방될 때까지 근무하다.

1966년(59세) 10월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²¹⁾

자술 연보를 따라 “1966년 10월 중앙 문단 복귀”로 기술하던 관행은 이미 김정한 관련 여러 연구서지에서 굳어진 지 오래다.²²⁾ 그런 점에서 (2)에서처럼 “10월, 단편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²³⁾로 바뀐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중기’로 규정하기도 한다.²⁴⁾ 그러나 이 시기 김정한의 행보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중기 김정한의 삶과 문학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 김정한의 작품세계와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1차 문학 사료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황국명은 「요산 김정한의 미발표작 별견」을 통해 10편 가량의 미발표 원고들을 개괄하고 그 특성을

20) 「연보」, 『김정한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486-487쪽.

21) 「작가 해적이」, 『김정한전집』 1, 시화사회사, 2008, 319-321쪽.

22) 『작가연구』 제4집, 새미, 1997, 111쪽과 강진호 엮음, 『김정한』, 새미, 2002, 311쪽의 「생애 연보」 참조.

23)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전집』 1, 작가마을, 2008, 321쪽.

24) ‘중기’의 명명은 임지영의 석사논문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임지영, 「김정한 중기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교육적 고찰」, 부산외대 석사논문, 2004, 2쪽.

밝힌 바 있다.²⁵⁾ 특히 단편 <유산(遺産)>과 제목이 없는 미완성 장편소설은 1965년 부산대 복직 이전에 창작되었으며, 해직교수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중기의 작품세계와 작가의 행적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면면이 소개되거나 성격이 규명되지 못한 까닭에 중기 작가의 행보와 의미가 결락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이 시기 작가의 행보는 『부산일보』를 비롯하여 여러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수필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작가가 묶어낸 수필집에 결락된 글들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²⁶⁾ 수필 장르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기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발굴·소개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논의를 보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세시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는 「농촌세시기」 7회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롭게 접근해야 할 의미망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농촌세시기」는 조갑상이 김정한의 자필 「요산 작품목록」을 토대로 ‘중편’으로 규정하였으나 발표매체인 『경남공론』의 후기를 토대로 삼을 때²⁷⁾ ‘미완성 장편소설’이다.²⁸⁾ 이 소설은 1920년대 초반 밤낮을 배경

25) 황국명, 「요산 김정한의 미발표작 별건」, 『2008년 한국문학회 동계 전국학술발표대회』, 2008.12.13, 49-63쪽.

26) 요산 김정환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김정환전집』이 출간된 이후 후속 작업이 담보 상태다. 조속한 시일 안에 김정환의 미발표 유고를 비롯하여 시, 수필, 칼럼 등의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7) <농촌세시기>는 김정환이 “多年間 構想”과 “數個月” 동안의 “執筆”을 거쳐 발표된 요산의 첫 장편소설이다. 「문화경남의 일년」, 『경남연감』 제2호, 경남연감편집회, 1955, 50쪽.

28) 최근 발굴된 『경남공론』 제33호(1956년 2월 10일 발행)에는 예상대로 <농촌세시기>의 7회분이 실려 있었으나, 앞선 32호와 달리 작품 말미에 “계속”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경남공론』 제34호(1956년 5월 1일 발행)에서 편집자는 “正副統領 選舉事務執行要領을 附錄으로하여 그 面數가 차”고, “執筆하는분들 學皆가 教鞭을 잡은분들”인데 “試驗期인 까닭에” “金廷漢씨의 「農村歲時記」가 “빠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환은 당시까지도 편집인에게 연

으로 유교적 전통주의가 식민지 근대화의 격랑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신식학교와 토지를 둘러싼 작중인물들의 갈등이 전경화되어 있다. 6회분은 혼암이 제안한 신작로 공사 때문에 토지 매립을 둘러싸고 혼암을 주축으로 한 마을 소작농들과 “빠꼼참봉”을 주축으로 한 마름 남과 선생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마을 청년들이 “빠꼼참봉” 눈에 말목을 박은 사건 때문에 혼암이 경찰에 연행되어 간다. 뒤이은 7회분에서 혼암의 연행 사건은 매란정 교장과 면장의 도움으로 풀려나면서 일단락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마을 소작농과 마름 혹은 지주와의 직접적 갈등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갈등에서 혼암은 마을의 소작농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실상 그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유학자이다. 마을 소작농의 대표성이 지사적 인물을 통해 재현된다는 점은 <농촌세시기> 이전 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 <산거족>의 황거칠, <인간단지>의 우중신 노인 등의 인물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농촌세시기> 이후 농민이나 하층민을 대표하거나 주동하는 노인형 인물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농촌세시기>의 갈등 해소방식 또한 마을의 소작농들이 아닌 유지들을 통해 원만하게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둘째, 새로운 민족적 주체인 영선에게 정신적 감화를 주는 인물은 다름 아닌 신식학교 매란정 교장이라는 사실이다. 매란정 교장은 식민지 근대문물의 전수자이지만 마을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 매란정 교장이 던진 “외다리라도 허재비는 선다.”는 발언은 영선에게 “아버지가 안 계셔도, 할아버지가 계셔도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선다. 그리고 영선이 처했거나

재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김정한의 글은 4월혁명 이전까지 발간된 『경남공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농촌세시기>는 의문에 가득 찬 미완성 소설로 남겨진 셈이다. 최미진, 「김정한의 미완성 장편소설 <농촌세시기>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8집, 2004, 216쪽.

처할 현실을 헤쳐 갈 용기와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선의 삶에 지표로 제시해 줄 인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매란정 교장은 작가 김정한이 다녔던 명정학교 교사 김법린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듯 <농촌세시기>가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이고, 작중인물들 또한 작가와 주변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²⁹⁾ 새버딩 학교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르던 공립학교가 아니라 1920년대 안창호가 주도한 민족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사립학교를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사립학교는 대개 민족의식이 높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영선이 작가 김정한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란정 교장의 면모는 김정한이 다녔던 명정학교 교사 김법린이었을 듯하다.³⁰⁾

셋째, <옥심이>처럼 한실택의 출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옥심이>에서 소작농의 젊은 아내 옥심이는 문둥이 남편과 어린 자식을 두고 동향의 안십장과 정분이 나서 출분해 버린다. 옥심이와 같은 출분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농촌세시기>에도 등장하고 있다. 한실택은 이른 아침 혼암의 방면을 위해 너울을 쓰고 친정인 한실로 떠난다. 이때 너울은 그녀가 명문인 유별감의 손녀라는 기표로 여느 소작농의 아내들과 구별짓는 표상이다. 그러나 도봇장수인 사설쟁이 맹순이 아버지가 너울을 쓴 아낙을 자전거에 태우고 갔다는 사실은 그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돌뱅이들의 회롱거리가 된다. 평소 맹순이 아버지가 혼암을 존경해왔고, 남편이 부재하지만 한실택의 행동이 방정하고 품성이 온화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맹순이 아버지의 단순한 호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실택이 3·1운동 후 남편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갈등을 배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29) 최미진(2004), 앞의 글, 223-224쪽.

30) 김법린(1899~1964)은 만해를 스승으로 하여 범어사에서 중이 되어 3·1운동에 참가하고 1926년 파리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1938년 만당 사건과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불교 운동가이다.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정함」, 『김정한』, 새미, 2002, 13쪽.

수 없게 한다. 미완성으로 끝난 소설이기에 그 사실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중기 소설세계를 전후기 소설의 변모 과정에 주목하여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1930년대 후반 김정한의 소설적 변모는 <월광한>에서 뚜렷하다. <월광한>은 지금껏 “어느 포구에서 해녀와 벌어지는 로맨스”,³¹⁾ “소시민 문학적 특성이 극명한 작품”,³²⁾ “친일희곡 「인가지」로 나아가는 전단계의 환상적·낭만적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작품”³³⁾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콩트 <당대풍>에서 전향의 가능성을 읽어낸 논의³⁴⁾와 더불어 친일희곡 <인가지> 창작에 이르렀던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일이다. 그 연장선에서 광복기 <옥중회갑>이 자기반성의 은밀한 목소리를 내비치고, 사회주의에 적극 공명하는 <설날>이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작가의 소설세계는 한국전쟁기 속물적 인간상을 상징적 그림과 대비시켜 둔 <사라진 사나이>에서 뒷걸음친다. 하지만 작가의 유년기 체험세계를 모델로 신문물과 농토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농촌세시기>는 비판적 현실인식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저항이 되새김질한 것은 타락한 선거풍토를 꼬집은 <누가 너를 애국자라더냐>와 <액년>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시각이 구체성을 얻은 것은 물론 <모래톱 이야기> 이후다. 이렇듯 중기 소설세계는 전후기 소설의 연속성과 변모과정을 살펴낼 주요한 단서로 보다 꼼꼼하게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김정한 소설세계의 연속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초기작 <그물[罟]>에서 마지막 작품 <슬픈 해후>에 이르

31) 강진호, 「부조리한 현실과 증언의 서사」, 『사하촌』, 문학과지성사, 2004, 454쪽.

32) 이정석, 「김정한의 삶과 문학」, 『낙일홍』, 경덕출판사, 2007.

33) 김동윤, 「김정한의 <월광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83쪽.

34) 김기호, 「김정한 초기소설과 그의 전향에 대한 고찰-작중인물의 현실대응의 변모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연구』 제3집,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 1991.

기까지 김정한의 소설은 상상에만 의존을 하기보다 작가의 체험과 혼용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과거의 기억에 의한 뒤틀린 묘사와 서술을 통해 작가의 문학정신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실천과 창조력의 승리”³⁵⁾라는 평가가 내려지는가 하면, 강렬한 주제의식에 반해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들도 적지 않다.³⁶⁾ 이러한 평가는 이제 특정 시기, 성향,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정한 소설의 연속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정한 소설의 연속성은 앞서 밝혔듯 체험의 서사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때문에 체험의 서사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변화와 차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작가적 체험의 당대성과 발표시기의 시의성이 연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소설세계의 연속성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럴 때 김정한 소설세계와 작가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본 확정과 개작 문제

김정한의 소설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정본 확정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발간된 김정한의 소설집과 선집은 줄잡아 20종을 훌쩍 넘고,³⁷⁾ 그 소설 연구는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대상 텍스트를 제각기 달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텍스트 선정과정에서 발표 게재본과 작품집이나 선집, 그리고 작품집이나 선집들 사이에 무시 못할 편차들이 존재하

35) 김종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김정한론」, 『김정한』, 새미, 2002, 90쪽.

36) 단편소설이 대부분이며, 중편이나 장편에서 다루었음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단조롭고 반복적인 소설문법을 구사하고 있어 질감 있는 언어 감각과 문체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37) 민충환, 「요산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낙일홍』, 경덕출판사, 2007, 417쪽.

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 확정의 필요성 제기³⁸⁾나 원전비평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민중환은 김정한의 소설선집 『낙일홍』을 편집·간행하면서 김정한 소설의 발표 원본과 뒤에 간행된 여러 작품집 내용을 일별하여 비교 검토한 바 있다.³⁹⁾ 발표 원본과 작품집 『낙일홍』(세기문화사, 1956)이나 『인간단지』(한얼문고, 1971) 사이에 작가의 대폭적 개고나 오·탈자의 문제가 존재하고, 작품집과 소설선집들, 특히 연구자들이 텍스트로 많이 삼는 『김정한소설선집』(창작과비평사, 1974)과 『낙동강』 1·2(시와사회사, 1994)⁴⁰⁾ 사이에는 편집자 임의로 가필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두드러져 연구 텍스트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책을 편집했던 이정석 또한 김정한의 문학세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정보 확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광복 이전의 작품들은 작품집 『낙일홍』에 실린 텍스트를, 해방 이후의 작품들은 발표 원본을 정보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⁴¹⁾

이러한 정보 확정의 필요성 논의에 탄력을 부여한 것은 본격적인 원전비평적 연구를 내보인 황국명에 의해서이다. 황국명은 「요산 김정한 소설의 원전비평적 연구」⁴²⁾를 통해 원본과 판본, 판본과 판본 사이를 꼼꼼하게 비교 대조하여 원본의 변화와 와전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일

38) 조갑상은 원전비평의 측면에서 완전한 요산 문학전집의 출간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21-22쪽), 최근 『김정한 전집』(작가마을, 2008) 간행에 참여하였다.

39) 민중환, 앞의 글, 418-433쪽.

40) 민중환은 『낙동강』 1·2·3을 저본으로 삼은 『사하촌』(문학과지성사, 2004) 또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글, 433쪽.

41) 이정석, 「김정한 문학연구의 재정초를 위하여」, 『우리문학연구』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 355-376쪽.

42) 황국명, 「요산 김정한 소설의 원전비평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별한 바 있다. 특히 원본의 어휘를 잘못 수정하거나 직시 표현을 변형·삭제한 경우, 원본의 어구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불필요하게 대체한 경우, 지역말을 부정확한 어휘로 수정한 경우 등 편집자의 자의적인 결단이 원본의 심각한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이 김정한 소설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본 확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작가에 의한 수정이나 개작 여부다. 작가에 의한 수정이 분명한 작품은 첫 창작집 『낙일홍』에 실린 <사하촌>, <옥심이>, <기로>다. 요산문학관에 소장 중인 ‘필자 교정본’을 참고해보면, 작가는 게재된 발표매체나 작품집을 ‘필자 교정본’으로 삼아 오·탈자 교정에서부터 어구나 내용의 첨삭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세 작품은 일제강점기 신문에 발표된 소설들로 작가가 첫 창작집을 내면서 지역말을 규범언어로 바꾸거나 문맥상 표현을 달리한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개작 여부와 과정이다. 개작이 뚜렷한 작품은 같은 시기 신문에 발표한 <항진기>다. <항진기>가 작품집에 실린 것은 창작집 『김정한소설선집』이다. 작가는 머리말에서 <항진기>를 “朝鮮日報 창고의 묵은 보관지에서 겨우 찾아 낸(그것도 빠진 부분이 있는)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³⁾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앞선 세 작품과 달리 작가가 소장하지 못했고, 찾아낸 작품도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부분의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진기>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김정한소설선집』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신문 연재본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새롭게 의미화해야 하는 소설이다.⁴⁴⁾ 내용상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호가 보리타작을 돕

43) 김정한, 「머릿말」, 『김정한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5쪽.

44) 이상경은 <항진기>의 개작에 눈길을 두어 별개의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그 개작을 검열문제와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변화를 고구한 바 있다. 이상경, 「김정한 소설과 검열의 문제」, 『근대의 안과 밖』(조남현

지 않고 내뺀 태호를 찾아 나섰다가 칠촌 아저씨, 양잠 지도원 영애와 함께 대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굴욕을 느끼며 돌아오는 장면 이후 부분부터다. 그 이후 부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연재본

1. 그날 밤 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다.
2. 하루 저녁 영애가 찾아와 아저씨에게 봉변을 당할 뻔 했다 말하다.
3. 두호는 아저씨에 대한 미움이 솟구치고 영애 또한 고등갈보로 여겨져 불쾌해지다.
4. 두호는 제 방에서 재워달라는 영애요구를 물리치나 웅색한 마음을 접고 찾아 나서다.
5. 두호는 바깥사랑에서 태호와 아저씨가 자는 것을 확인했으나 영애를 찾을 수 없다.
6. 그날 밤 영애가 떠난 후 이상한 풍설이 돌고 태호는 기죽어 지내다 홀연 사라지다.
7. 동리아학회 농번기 휴업하던 날 저녁 두호는 동무들과 밤새도록 보리타작을 하다.
8. 이튿날 동무들과 그 가족들이 새벽부터 나와 모를 내기 시작하다.
9. 두호는 구장에게서 태호와 영애가 보낸 편지를 건네받다.
10. 두호는 태호가 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출발의 결의를 보여 기뻐하다.
11. 두호는 영애가 편지에서 그녀의 정황과 그리운 심정을 전하나 시금떨떨하다.
12. 모내기를 반쯤 끝냈을 때 사슴 녀석이 달려와 두호와 팔뚝 잡이를 하고 돌아가다.
13. 사슴 녀석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왔으나 모내기가 끝난 뒤다.

『김정한소설선집』

1. 그날 이후 태호가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다.
2. 그날 영애는 칠촌 아저씨와 함께 돌아왔다가 제 갈 길을 가다.

· 김인환 외), 민음사, 2008, 209-219쪽.

3. 두호는 어머니가 태호를 업신여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에 송구스러워하다.
4. 두호는 어머니의 농 서랍에서 형의 백통 수저를 발견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다.
5. 두호는 손 마름이 보리타작을 종용하며 형 소식을 묻는 말에 쏘아붙이다.
6. 그날 새벽부터 두호네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사내들은 보리타작과 논갈이를, 아낙네들은 모찌기를 시작하다.
7. 아침나절이 못되어 씨레질이 끝나고 모내기가 시작되다.
8. 저녁나절 손 마름이 두호네 눈에 찾아와 모내기를 제지하려다 실패하고 돌아가다.

신문 연재본과 창작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하나는 대절차를 타고 놀러간 날 이후 태호와 영애의 행적 부분이다. 신문 연재본은 그날 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 날 저녁, 두호는 자신을 찾아온 영애가 “고등갈보” 같이 여겨져 마음에서 물린다. 이로써 영애를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은 사라진다. 문제는 영애가 사라진 얼마 후 태호마저 마을을 떠나는데, 그 또한 편지를 통해 그들의 서로 다른 행적을 분명히 한다. 특히 태호의 편지는 사회주의자의 변모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는 자신이 “공상가”가 될 위험성이 다분함을 인정하고 생활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아울러 두호를 “확실히 의지가 굳센 “생활의 인”, “실행의 인”으로 존경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발언은 사회주의자 스스로 자신의 허실을 인정하고 건설한 농민인 두호의 논리에 승복하는 것이다. 그들의 갈등 국면은 두호의 승리를 앞세우며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창작집에서 태호는 그날 이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 두호와 태호의 갈등해소 국면은 “영애가 철새처럼 제 갈 길을” 갔다는 문장이 삽입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계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두호가 부자와 형제 간의 갈등을 원망하거나 안쓰러워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갈등의 완화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창작집에서 형제의 갈등 해소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신문 연재본과 창작집의 차이성은 마름과 소작농의 갈등 해소방식에 있다. 두 판본에서 소작농 두호의 저항은 민중적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신문 연재본에서는 두호가 동리야학회 일원이라는 사실이 생뚱맞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 동리야학회 동무들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통해 마름 손 사임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대가 아니라 야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대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손 사임의 으름장 또한 현실화되지 못하고 만다는 점에서 민중적 연대의 성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창작집 또한 민중적 연대를 통한 저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문 연재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창작집에서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보리타작과 모내기는 “앗은 품 이외에 물론 놈도 너덕하게 대었다”는 점에 많은 부분 힘입는다. 그럼에도 “박침지나 두호와 연분이 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손가란 마름의 농간 짚에 눈을 때었거나 혹은 그의 악착같은 말벗김에 틀린 사람들”이 뽕뽕 뭉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민중적 연대가 단순한 품앗이에서 마름에 대한 저항으로 결속되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그 결말은 신문 연재본에 비해 미해결 상태다. 마름이 사라진 후 일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지만 여전히 “나중에 후회나 말게”라는 마름의 호언장담이 남겨져 있는 상태다. 농민들의 연대와 저항이 과연 성공할 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그럼에도 비현실적인 사회주의자 태호에 견준다면 민중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저항의 연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상에서 보듯 두 판본은 모두 건실한 농민 두호와 사회주의자 태호의 갈등이 애정과 현실문제로 이분화되어 있으나 그 해소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신문 연재본은 사회주의자 태호의 의식적 각성을 직접적으로 제

시한 반면, 창작집에서는 그것을 두호의 민중적 연대와 저항을 통해 에둘러 제시하고 있다.⁴⁵⁾ 영애를 둘러싼 애정갈등 또한 두호의 포기가 앞서 제시된 신문 연재본과 달리 창작집은 영애가 동리를 떠남으로써 흐지부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마름에 대항하는 소작농 두호의 저항이 민중적 연대방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공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 연재본은 동리야학회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민중의 연대방식을 따른다면, 창작집은 전통적인 품앗이 방식을 통해 민중들이 결속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문 연재본과 창작집의 사이에는 37여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의 변모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신문 연재본은 사회주의자의 허실을 스스로 깨닫고 변모하는 과정이나 소작인의 저항이 동리야학회를 중심으로 한 민중적 연대를 통해 성공적으로 끝맺는다는 점에서 김정환 소설에서 이례적 면모를 보여준다. ‘신경향파 작가’라는 백철의 규정을 작가는 의식적으로 거부했지만, 신문 연재본은 그러한 면모를 상당 부분 껴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진기>에서 보듯 신문 연재본과 창작집 사이에는 작가의 수정이나 개작에 의해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가가 창작집에 많이 기대어 있었던 만큼 작가의 개작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는 일에 보다 세심한 눈길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본 확정에서 원본과 개작본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다.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원본과 개작본을 별개의 텍스트로 동시에 인정하자는 입장⁴⁶⁾과 원본 혹은 개작본 하나만 정본으로 삼자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최근 조

45) 조정래는 <항진기>를 <사하촌>의 저항보다 한 걸음 더 구체성을 획득하였고, 파괴적이 아니라 생산적인 구도 안에서 농민의 집결하는 힘을 발견해 낸다는 점, 저항의 실천적 방향을 아이러니 기법에 의존하여 제기하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조정래, 「현실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김정환의 초기소설 연구」, 『김정환』, 새미, 199쪽.

46) 이상경(2008), 앞의 글, 210쪽.

갑상의 「김정한 「지옥변(地獄變)」의 원전비평적 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지옥변>은 <항진기>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개작과정이 뚜렷한 소설이다. 그는 소설의 원본과 여러 판본(한일본, 삼성본, 창비본)을 대상으로 작가의 개작 과정을 면밀히 고구한 결과, 소설의 미학적·주제적 특성 면에서 정본이 원본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⁷⁾ 반면 최근 출간된 『김정한전집』은 양자의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다.⁴⁸⁾

한국문학사에서 원전비평적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김영민이 밝혔듯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료의 누락과 첨가 문제, 현대어 표기 과정에서 문체와 어휘 해석 문제, 작가 확정 과정에서 무서명과 비실명 문제, 현대어 표기과정에서의 문제, 창작과 번역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⁴⁹⁾ 이러한 사정은 김정한의 소설 연구에서도 다르지 않다. 연구의 활성화와 생산적 담론의 확대를 위해서도 원전비평적 연구에 눈길 두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5. 마무리

이 글은 그간 김정한 소설의 연구에서 결락된 부분을 검토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정한 소설의 큰 흐름을 체험

47) 조갑상, 「김정한 「지옥변(地獄變)」의 원전비평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4집, 국어교육학회, 2009, 453쪽. 최근 필자가 참여한 『김정한전집』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지옥변>은 편집자주에 따르면 “게제지를 저본으로 하여 한일문고본과 창작과비평사본의 자필 교정을 부분 반영하였다”고 밝혀두고 있다.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전집』 3, 작가마을, 2008, 363쪽.

48) 『김정한전집』 제1권에서 <사하촌>, <옥심이>, <항진기>, <기로>는 창작집과 신문연재본을 구분하여 수록한 반면, 다른 책에서는 대부분 발표본을 원본으로 삼고 있다.

49) 김영민, 「한국 근대문학과 원전(原典) 연구의 문제들」, 『현대소설연구』 제3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9-35쪽.

의 서사화에 주목하여 재구성하는 일은 작가의 문학정신과 서사전략, 그리고 그 한계를 통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생애사적 연구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편린들과 서사 전략 사이의 간극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새롭게 의미화해야 한다. 특히 김정한의 삶과 문학에서 그 행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중기의 소설세계는 작가의 삶과 창작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발굴·소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후기 소설의 변모과정에 주목하여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소설세계의 연속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시각과 노력이 요청된다. 아울러 원전비평적 연구가 심화될 때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되리라 여긴다.

최근 김정한의 소설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김정한 “낙동강의 파수꾼” 임을 자처했던 소설가였고 부산대 교수를 역임했던 학자였다. 그런 만큼 부산·경남 지역에 많은 후배와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더욱이 요산문학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김정한의 삶과 문학이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현양되었음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런데 김정한의 소설 연구가 그 지평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도 지역문학으로 축소되는 인상을 쉽게 지우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요산 김정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전집 출간은 그동안 김정한 문학 연구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여긴다. 앞으로 김정한의 소설 연구는 새로운 연구시각과 방법론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소설뿐 아니라 다른 장르를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서 보다 풍성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진호 엮음, 『김정한』, 새미, 2002.
- 강진호 책임 편집, 『사하촌: 김정한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4.
- 구중서, 『민족문학의 길』, 중원문화사, 1979.
- 김명인,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 김봉모, 「김정한 소설 어휘 사전」, 세종출판사, 2006.
- 김정한 자선대표작, 『낙동강』 1~2, 시와사회사, 1994.
- 김정한,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 김정한, 『김정한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 김정한,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 김정한, 『낙일홍』, 세기문화사, 1956.
- 김정한,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 민충환 엮음, 『낙일홍』, 경덕출판사, 2007.
- 신경림 엮음, 『농민문학론』, 온누리, 1983.
- 요산김정한선생고회기념사업회, 『요산 문학과 인간』, 오늘의 문학사, 1978.
-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전집』 1~5, 작가마을, 2008.

2. 논문

- 「기획특집: 요산 김정한의 삶과 문학·1」,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 「농촌세시기(農村歲時記)」 1회~7회, 『경남공론』 제26호~제33호, 경상남도, 1955.2~1956.2.

- 「특집: 김정한」, 『작가연구』 제4호, 새미, 1997.
- 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탄생 100주년을 맞은 요산의 문학」,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 360~375쪽.
- 김기호, 「김정한 초기소설과 그의 전향에 대한 고찰-작중인물의 현실대응의 변모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연구』 제3집,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 1991, 217~236쪽.
- 김병걸,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 1972년 봄호, 95~115쪽.
- 김선미, 「이종률의 민족운동과 정치사상」, 부산대 박사논문, 2008.
- 김태기, 「요산 김정한 소설세계와 이야기 방식 연구」, 경상대 박사논문, 1996.
- 김태웅, 「한국 근현대 지방 지식인 김정한의 사회운동과 터전 의식」, 『한국사연구』 135호, 한국사연구회, 2006.12, 87~114쪽.
- 박태일, 「김정한 희곡 “인가지” 연구」,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405~430쪽.
- 송명희, 「김정한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제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261~289쪽.
- 염무웅, 「농민소설의 민중문학적 맥락-김정한과 송기숙의 소설사적 위치에 관한 메모」, 『문예미학』 제9호, 문예미학회, 2002, 143~152쪽.
- 윤정규, 「요산 김정한이 겪은 해방정국」, 『역사와 비평』 1995년 가을호, 65~72쪽.
- 이 경, 「60년대의 환부와 치유-김정한 소설론」, 『수련어문논집』 제26·27집, 수련어문학회, 2001, 139~172쪽.
- 이규정, 「요산 김정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35집, 부산여자대학, 1993, 5~64쪽.
-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35~162쪽.
- 이상경, 「김정한 소설과 검열의 문제」, 『근대의 안과 밖』(조남현·김인환 외), 민음사, 2008, 209~219쪽.
- 이순옥, 「1950년대 요산 김정한의 미발굴 장편소설 「농촌세시기」」,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232~309쪽.
- 이순옥, 「습작기 요산 김정한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33~67쪽.
- 이정석, 「김정한 문학연구의 재정초를 위하여」, 『우리문학연구』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8, 354~376쪽.
- 임중빈, 「김정한론」, 『창조』 제26권 제3호, 1972.3.
- 임지영, 「김정한 중기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교육적 고찰」, 부산외대 석사논문, 2004.
- 조갑상, 「김정한 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1.
- 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11~32쪽.
- 조갑상, 「김정한 「지옥변(地獄變)」의 원전비평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4집, 국어교육학회, 2009, 433~458쪽.
-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8호, 동남어문학회, 2004.
- 정주일,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근대화 담론 연구: 김정한, 이호철, 남정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충북대 박사논문, 2009.
- 최미진, 「김정한의 미완성 장편소설 <농촌세시기>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8집, 한국문학회, 2004, 213~243쪽.
- 최미진, 「요산 김정한의 단편소설 「사라진 사나이」 연구」, 『한국문학비평과 이론』 제3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159~182쪽.
- 한수영, 「김정한 소설의 지역성과 세계성-문단 복귀 후의 김정한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문학도시』 2004년 봄호,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31 ~ 54쪽.

황국명, 「요산 김정한 소설의 원전비평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365 ~ 409쪽.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289 ~ 318쪽.

<Abstract>

The Present and Future Direction of Studying Kim, Jeong-han's Novels

Choi, Mi-Jin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key issues regarding the novels written by Yosan Kim, Jeong-han to present a new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because most of the studies on his novels followed the footprints of the KAPF and supported the national literary criticism of the 1970's.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review 'the narrative of writer's experiences,' which i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studying his works. To this end, an objective research not influenced by his reputation by separating novelist Kim, Jeong-han from ordinary Kim, Jeong-han is required. To begin with, filling in missing information and sorting out non-objective information are important. Second, it is essential to see if there are any gaps or coherence between the reconstructed memory and his narrative strategie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This paper has examined <Gwajeong>. Third, a through examination of continuity or gaps in his novels is also needed.

Next, a critical approach to the discourse on his quitting writing, which is the dubious part of Kim Jeong-han's life and literature, is necessary. To that end, first, the time from the Liberation Period to when <Moraetop(Sand bank) Story> was published should be categorized as 'a middle period,' not as a period of putting down his

pen, in order to ensure continuity of his novels. Second, continued efforts to discover and introduce his middle period works are required. To achieve this goal, seven stories from the serial novel <Nongchonsesigi> are included in this paper. Since his middle period novels can give a clue to the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process in his overall novels, more studies need to be done.

Lastly, it is essential to closely look into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original text, which is an indispensable part in studying his works. More than 20 different books of his stories have been published, but researchers selected different texts for their studies at their convenience. After going through the textual criticism, the story which was published in the media for the first time should be regarded as the original.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riginal and its adaptations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any adjustment or adaptation by the writer are another requirements. Then, a review of the overlooked original or its adaptations should be made for any research in the future. As part of this procedure, <Hangjingi> is examined in this paper.

The future direction of studying Kim Jeong-han's novels, therefore, should be to fill in the missing parts, critically re-examine the continuity of his stories and ponder a new research method throughly.

Key Words : Kim Jeong-han, narrative of experiences, middle period novels, continuity, transformation process, textual criticism, decision on original text, adaptation, <Gwajeong>, <Nongchonsesigi>, <Hangjingi>

■ 논문접수 : 2010년 3월 10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